

2017 추수감사예배

있던 것이 없어져봐야 진짜 소중함을 알게된다.

1.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

(1) 신부의 존재를 알게 해준 신랑의 존재적 사랑

아가서의 핵심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솔라미 여인을 향한 신랑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이다.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사랑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설명할 수 있기에 소중하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존재적 사랑을 말한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 소유적 사랑의 성격이 강하다. 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나'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조건을 보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상황에 맞아야 '사랑'이 성립이 된다. 문제는 나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변함없이 지속되면 괜찮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 또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토브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동일하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이 바로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탕자의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어떤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으신다. 조건없이 아들을 환영하며 회복시키신다.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아들이라는 존재, 그 이유 하나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랑의 사랑 또한 분명하다. 사랑할 조건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사랑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조건에 맞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 당신의 삶과 피를 조건없이 나누어 주신 것, 그리고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일이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먼저였고, 일방적인 사랑이었다.

(2) 조건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미성숙한 자아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섭섭함'이다. 섭섭함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섭섭하다 - 기대에 어긋라져 불만스럽거나 못마땅하다.' 이다. 마음에 만족이 아닌 결핍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섭섭함이다.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의 마음'이다. 가인이 준비했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안색이 변한다.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마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바로 첫 번째 죄인 아담의 마음이다.

원래 아담은 조건없는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증거가 아담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심히 좋았고 고 말씀하신(토브)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담의 마음에는 어떤 부족함도 결핍도 없었다. 이것이 건강한 상태이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 아담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었다. 아담의 마음안에 들었던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여 보게 만들었다. 죄의 삶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의 사망의 그림자를 느낀 아담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왜곡하여 바라보게 만든 것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두려움이다. 바로 고아의 상태인 것이다.

고아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이다. 그래서 언제나 조건과 상황에 민감하다. 그 마음이 '열등감'으로 나타난다. 열등감이 가인의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열등감이 있는 자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거절의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거절 자체를 자기의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칭찬과 인정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불안정하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위협의 존재가 되었던 아벨을 제거한 것이다. 끝없이 자기 자신을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 고아의 마음은 언제나 만족이 없다. 더 가져야 하고 더 먹어야 한다. 고아의 마음은 '미성숙한 아이의 마음'이다. 미성숙한 아이를 보라. 양손 가득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고 운다. 욕심을 부린다. 나누어주는 것이 없다.

(3)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존재적 신앙이란 상황과 조건에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행위'에 갇혀 있는 조건적 사랑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며, 그 온전함을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존재적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강하다. 성숙하다. 하나님을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 섭섭함과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말한다. "하나님 당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존재적 사랑의 핵심적 고백이다.

2. 부재함을 통해 깨닫는 존재적 사랑의 소중함

(1) 욕의 성숙함

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욕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욕이 고난을 당한다. 욕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 가운데 느꼈던 하나님의 '부재'이다. 고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자신의 통제선을 넘어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고난과 시험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다. 고난은 인내를 요구한다. 인내는 인간에게 쉬운 것이 아니다. 참을성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난의 실제적 문제는, 고난을 겪고 있는 나의 실제적 상태를 말한다. 어떤 상태로 나는 고난을 이겨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의 때에 인내하게 해줄 '의지의 대상'을 찾는다. 어려울 때 신앙을 갖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두렵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의지할 안전함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욕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내가 겪고있는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부재의 시험을 주는 당사자인 사탄의 시험이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목표는 하나이다. 우리 안에있는 죄의 뿌리인 두려움을 드러내어 고아처럼 만드는 것이다. 욕이 보여준 믿음의 위대함은 그 순간에 있다. 사탄의 시험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부재함으로 오는 고아의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주는 하나님의 부재함은 절정이었을 것이다. 그런 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신다. 결국 욕이 겪었던 바닥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

[욕기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2) 신랑의 부재함에 대한 신부의 깨달음

[아가서 3:1-2]

1 여자)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입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2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입을 찾겠다'고 마음 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해준 신랑의 사랑 앞에 신부는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신부의 사랑은 아직 연약하고 미성숙하다. 아직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다. 이런 신부를 향해 신랑은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제의하지만, 신부는 머뭇거리며 두려워한다. 왜 그런가? 아직 그 사랑이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부의 미성숙한 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아가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 앞에서 사라진다. 신부는 어느 순간 신랑의 부재를 느낀다. 그제서야 신부는 깨닫는다. 신랑이 항상 옆에 있을 때 소중함을 몰랐는데, 신랑의 부재가 느껴지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를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신랑 옆에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아가서 3:1-2절은 부재함 속에서 오히려 신랑의 존재를 깨달은 신부의 여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나선다(1절). 거리와 성읍은 신부에게 아직 위험한 장소를 상징한다. 그런 장소에서도 머뭇거림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결국 신랑의 부재는 신부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준다.

[아가서 3:3-4]

3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입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4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입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드디어 신부의 간절함은 신랑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신랑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놓칠세라 꼭 붙잡는다.

3. 부재함이 주는 은혜

(1) 절대적 사랑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적 사랑을 아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이겨내는 성숙함을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십자가를 보라. 고통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다.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던 것처럼, 고통속에 느꼈던 하나님의 '부재함'이다. 하나님의 '침묵'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죄의 본질적 뿌리, 즉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여기는 '고아의 마음'을 사랑으로 이겨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증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긴 절대적 사랑이다.

(2)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존재적 신앙으로부터 오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그 때,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은 나의 부유함이 되어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죄악에 빠져 더럽다고 여기고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이 되어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목마를 때, 주님은 나에게 샘물이 되어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길을 잃고 헤메고 있을 때, 주님은 나에게 길이 되어주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의 존재적 사랑앞에 서자. 그 분은 우리의 친구, 신랑이 되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감사하자.